

# 조선후기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 : 건강장수도시의 한국적 원형 탐구를 위한 문헌 고찰

A Study on the View of Ideal Dwelling Environment in the Late Joseon Period  
: An Examination for Searching the Prototype  
of the Healthy & Longevity City in Korea

최원석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  
Choi Wonsuk              HK Prof., Gyeongnam Cultural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  
   (wschoe@empal.com)

## 목 차

- I. 서론
- II. 거주환경과 신체의 상관적 인식
- III. 거주환경과 건강장수 조건에 대한 풍수적 이해 방식
- IV.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
  - 1. 홍만선의 「산림경제」
  - 2. 이중환의 「택리지」
  - 3.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
  - 4.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 V. 결론

##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의 검토를 통해 건강장수도시의 한국적 원형을 탐구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고령화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한국에서는 건강과 장수가 실질적인 삶의 존재 이유와 목표가 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현재 한국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7% 미만인 시군은 5개에 불과하며, 53개 시군이 고령화도시, 26개 시군이 고령도시, 나머지 80개 시군은 초고령도시의 범주에 포함되었다(김태환 외, 2011: 요약 vi). 생활공간의 도시화 역시 2010년 현재 도시화율 91%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 이제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 방향은 기존의 하향적인 성장과 경제적 개발 위주에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시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외의 흐름은 도시마을(Urban Village), 뉴어바니즘(New Urbanism), UN의 정주지 의제(Habitat Agenda II), 새천년 마을(Millennium Village), 전통마을의 환경친화적 도시마을 계획 등의 형태로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sup>1)</sup>

‘건강장수도시’ 개념은 최근에 국토연구원이 건강장수도시연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도시패러다임 프로젝트로 기존의 ‘건강도시’<sup>2)</sup> 개념에 장수 조건을 더하여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2011년 말에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건강장수도시의 조성 현황과 현안 과제를 검토한 기초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여기에서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은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나가는 도시”로 정의되었다(김태환 외, 2011).

건강장수도시의 한국적 실현과 조성을 위해서는 건강장수도시의 한국적 원형을 탐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건강장수라는 가치의 실현은 지역환경 및 역사·문화전통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건강장수를 가능케 하는 이상적인 거주환경이고 공간적인 조건인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한국 전통의 이상적인 주거관과 거주환경 조건에 대한 탐색 작업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저술에는 풍수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건강장수도시 개념 구축에 참고될 수 있는 공간입지, 환경관리, 경관미학, 지역보건위생 등과 같은 내용이 풍부하며, 이상적인 거주환경지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지역현장에서 수백 년을 유지해온 마을을 보더라도, 하회·양동 등 주요 전통마을의 GIS 분석에서 주거입지의 환경적합성이 검증된 바 있듯이(최희만, 2005: 300),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주환경 조건에 관한 경험적인 사례들이 널리

- 1) 주민이 주체가 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도시마을’에 관해서 부연 설명하면, 1989년 영국에서 시작된 도시마을(Urban Village) 운동이 쾌적하고 인간적인 스케일의 도시환경 계획을 목표로 설정하였음(김관홍, 2010: 7). 1991년 미국에서 시작된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운동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구조 속에서 주민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중시하였음(이원규, 2009: 11). 1996년 UN의 정주지 의제(Habitat Agenda II)는 환경친화적 도시마을 실현을 위한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였음(UN, 1996). 2000년 새천년 마을(Millennium Village)이 21세기 주거의 새로운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음(Davis Llewelyn, 2000). 국내에서는 전통마을을 사례로 들어 역사와 전통, 현대적 삶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마을 계획 방법을 제안한 시도도 있었음(김충래·이광영, 2004).
- 2) 건강도시는 1984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Healthy Toronto 2000’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그 개념은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WHO)라고 정의된 바 있음. 한국에는 1986년 건강도시 개념이 소개된 이래 현재 63개의 지자체가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김태환 외, 2011).

있다. 현재도 다수의 주민들이 건강장수를 누리고 있는 전통마을의 사례는 건강장수마을의 한국적 원형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우선 조선후기의 주거관과 거주환경 논의에 관한 문헌 연구에 치중하였다. 사상적 배경으로서 거주환경의 중요성과 신체와의 상관적 인식을 살펴본 다음, 거주환경에 대한 풍수적 이해 방식을 고찰할 것인데, 풍수는 사회계층과 지역 여하를 막론하고 조선후기의 주거관을 지배한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조선후기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를 실학자들의 주요 저술들을 통해 검토한다. 이처럼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주요 저술을 통해서 주거관과 거주환경 논의를 검토하고, 건강장수 조건과 관련시켜 탐구하는 연구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주거관과 거주환경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우선 주거관에서 「택리지」의 자연관과 산수론을 통해 조선후기 사대부의 주거관을 전착한 연구(김덕현, 2010)가 있다. 정감록과 택리지에 나타난 가거지관(可居地觀)을 비교 연구한 논문(예경희·김재한, 2007)도 조선후기의 주거관과 거주환경의 단면을 잘 포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적 거주환경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편이다. 단행본으로는, 전통마을의 경관 요소들이 갖는 생태적 의미를 탐구한 저술(이도원, 2005)을 들 수 있다. 전통생태학의 근래 성과를 모은 저술(이도원 외, 2004, 2008)에는 마을의 거주환경에 대해 현대적으로 조명한 다수의 글이 실려 있다. 학술 논문으로는 함양 개평리 마을을 사례로 조선시대의 전통마을에 나타난 서식관(棲息觀)을 연구한 논문(최기수, 2001), 풍수이론을 통해서 전통마을 거주환경의 조성원리를 탐색한 연구(이학동,

2003) 등이 있다. GIS를 이용한 전통 취락의 지형적 주거입지 적합성 분석(최희만, 2005)은, 주요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GIS 기법을 활용하여 환경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후로는 지형적 환경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택리지」의 마을입지론과 같은 조선후기의 거주환경 논의가 반영된 분석 지표를 적극적으로 개발·적용하는 방법론이 요청된다.

조선후기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의 논의를 살핀 이 연구는 향후 한국적인 문화전통에 적합한 건강장수도시의 학술적인 개념 정립과 실제적인 조성 과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거주환경과 신체의 상관적 인식

건강과 장수의 실현은 생물학적 현상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사람의 수명과 건강에는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삶의 과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거주환경 조건은 건강과 장수의 요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건강장수 조건으로서 환경적 요인은 사회적·문화적·생물학적 요인의 자연적 배경을 이룬다. “건강한 환경이 건강한 몸을 낳는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는 자연환경과 건강장수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저술을 생산하였던 사회담론이기도 하였다. 중국 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의 “사람과 천지는 서로 응한다”는 표현은 이러한 환경과 몸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렇듯 자연과 신체를 통합적이고 일체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동아시아 사상의 측면에서, 건강과 장수의 장소적·공간적 조건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3) 박삼욱 외(2005)에 의하면 지역환경요인 중에서 평균표고와 강수량, 산림률이 장수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인간의 수명은 유전정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물려받은 유전정보를 기초로 하여 개인이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거치는가에 의해서 수명이라는 복합적 현상이 결정된다(전경수, 2008: 19). 물론 건강이라는 현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서 삶의 과정에 연관되는 사회문화적인 주요 요소는 의·식·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주거 조건의 비중이 가장 크다. WHO도 건강도시를 이루는 조건 중에서 “거주환경을 포함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가장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실현 요소로 둔 바 있다. 이에 건강과 장수의 거주환경 조건에 대하여 전통적인 지혜와 역사적인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노력이다.

조선후기의 유교지식인들의 주거관을 보아도 거주환경을 섭생(攝生)과 생업에 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 거주환경의 선택은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최우선의 요건이었던 것이다. 실학자 홍만선은 「산림경제」에서 “주거지 선택의 계획이 이미 성취되고, 몸을 거처할 장소가 완성되면 이어서 보양(保養)과 복식(服食)의 방법으로써 병을 물리치고 수명을 연장시킬 줄 알아야 한다”<sup>4)</sup>고 말하여, 주거지 선택과 거주환경의 조성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그는 이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攝生)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농사 등과 같은 생업의 방법에 관한 서술은 주거지 선택(卜居)과 섭생 다음에 이어졌다. 또한 이중환 역시 「택리지」에서, 살기 좋은 마을을 선택함에 있어서 거주환경 조건(地理)을 경제 조건(生利), 사회 조건(人心), 자연(미) 조건(山水)보다 중요하게 취급한 것도 그러한 인식의 배경에서 나왔

다. 이러한 정황은 기타 저술들의 목차에서도 드러나는데,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는 거주환경과 집터 선정에 관한 논의인 “복거(卜居)”편을 책머리에 두고 있다.<sup>5)</sup>

동아시아의 사상체계에서는 거주환경과 신체조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흔히 이러한 사고방식을 서구지리학의 환경결정론적인 틀과 대비하여 이해하지만, 환경과 인간을 대립항으로 두고 환경의 일방적인 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사람의 생명에 미치는 자연의 긴밀한 영향력을 표현한 것이다. 우주와 인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중국 사유에서, 대우주(자연)와 소우주(인체)에 공통되는 형태학과 생리학은 종합적인 앎이자 유일한 규칙이었다(마르셀 그라네, 2010: 390). 환경-신체의 상관적 인식은 전통문화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였으며, 다양한 사상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해석 방식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상 분야 및 해석 방식이 ‘기(氣)’론이다. 예컨대 중국의 고전인 「좌전」에서는 기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기로 표현된 자연환경요소가 신체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논리적인 해석체계로 말하였다.

육기(六氣)는 음(陰), 양(陽), 바람[風], 비[雨], 어둠[晦], 밝음[明]을 말한다. …… 음이 지나치면 냉병이 되고, 양이 지나치면 천식과 갈증을 일으킨다. 어둠이 지나치면 정신이 혼란해지고, 밝음이 지나치면 마음이 피로하다.<sup>6)</sup>

중국의 고전의학 체계인 내경의학에서도 인체를

4) 山林經濟. 卷1. “卜居”.

5) 다만 19세기 초반에 편찬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서는, 주거지 선택과 거주환경에 대해 서술한 “상택지”가 책의 후반부에 편제되었음.

6) 左傳. 卷17. 昭公元年.

풍토와 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황제내경」에서는 거주환경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중국의 지리적인 특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천기는 서북쪽에 부족하다. 그래서 서북쪽은 음이고 사람의 오른쪽 눈과 귀는 왼쪽 눈과 귀만큼 밝지 못하다. 지기는 동남쪽에 부족하다. 그래서 동남쪽은 양이고 사람의 왼쪽 손과 발은 오른쪽만큼 강하지 못하다. …… 천기는 폐에 통하고, 지기는 목구멍에 통하고, 풍기는 간에 통하고, 전기는 심장에 통하며, 곡기는 비장에 통하고, 우기(雨氣)는 신장에 통한다. 육경(六經)은 네가 되고, 장위(腸胃)는 바다가 되고, 구곡(九竅)은 수주(水注)의 기가 된다.<sup>7)</sup>

인용문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중국 사상에서 지역적 거주환경과 신체의 밀접한 연관관계는 상호간의 대응(照應)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환경과 신체의 유비적(類比的) 인식과 상관적 해석 방식은 동아시아적 사유의 중요한 한 패턴이다. 예컨대 「황제내경」에서 이르기를, “하늘이 둥그니 인간의 머리는 둥글고, 땅이 평평하니 발이 평평하다. 해와 달은 두 눈이고, 구주(九州)는 사람의 몸에 있는 아홉 개의 구멍이며, 오음(五音)은 오장이고, 육율(六律)은 육부이며, 365일은 인체의 360마디로서, 12경수(經水)는 12경맥이다”<sup>8)</sup>고 하였다. 풍토와 신체에 대한 상관 구조와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예는 하천과 혈액의 상응을 설명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관자」에서 “물은 대지의 피[血

氣]이며, 근육과 혈관에서처럼 통하고 흐르는 것이다”<sup>9)</sup>라고 했으니, 몸과 유비된 인문지리적·환경론적 인식의 반영인 것이다. 한의학에서 인체의 혈에 대한 명칭 중에서 곤륜(崑崙)이라는 산 이름도 있고, 해[日]와 달[月], 별[太乙], 바람과 못[風池] 등을 비롯하여, 물, 시내, 샘, 우물, 바다 등의 자연 명칭을 가진 것이 무수하다. 이 모두 환경과 인체의 대응 관계에 대한 인식의 통찰이요, 소산이다.

이러한 거주환경과 신체의 상관적 인식은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보편화되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따라서 몸의 기능이 변화하고 질병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여, 기후의 변화가 몸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였다(한상모 외, 1991: 30).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도 주거지와 사람의 상관적 인식이 잘 나타난다. “땅에 생생한 빛과 길한 기운이 없으면 인재가 나지 않는다”고 인재의 출생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이 언급된 바 있다. 사람의 생명이 거주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환경적 요소가 인재의 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김정호가 “산등성이[山脊]는 땅의 근육과 뼈이며, 물줄기[水派]는 땅의 핏줄기[血脈]”<sup>10)</sup>라고 한 것도, 자연지형을 몸에 비유함으로써 자연과 신체의 상관적 인식을 잘 반영한 표현이다.

조선후기의 최한기에 이르면 거주환경과 신체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사람의 능동적인 의의와 역할이 강조되기에 이른다. 기학(氣學)이라는 학문체계를 완성하였던 최한기는 지기(地氣)와 그 장소에 사는 유기체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지기는 그 자리에서 사는 생명과 직결되

7) 黃帝內經. “素問”. 陰陽應象大論篇.

8) 黃帝內經. “靈樞”. 邪客篇.

9) 管子. 水地編.

10) 靑邱圖. 凡例.

어, 적재적소에서 생명을 보전하거나 장소를 옮겨 생명을 해치는 것은 모두 “지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장소적 유기체에 대한 지기의 영향력을 강조한 것이다(최원석, 2009a: 94). 그런데 동시에 최한기는, 사람은 지기의 영향을 받지만 역으로 천지의 기를 도야하고 지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변통을 위해 학습이라는 공부의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자연환경[水土]과 부모의 정혈(精血)이 근원과 기초가 되어 형질을 생성하니, 익혀서 천지의 신기(神氣)를 도야한다. …… 사람의 몸에서 신기를 생성하는 요소는 네 가지이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풍토며, 셋째는 부모의 정혈이요, 넷째는 보고 듣고 익히는 것이다. 앞의 세 가지는 이미 타고난 것이라 거슬러 바꿀 수 없으나, 아래의 한 가지는 실로 변통하는 공부가 된다.<sup>11)</sup>

인용문의 후반부에 제기된 최한기의 논변은, 사람이 주체적으로 건강장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거주환경이나 타고난 신체조건에 한정되지 말고, 보고 듣고 익히는 공부를 통해 주어진 조건을 변화·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이다. 이것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거주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의 주체성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과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전통적인 주거관의 인식체계에 있어서 건강장수의 신체적 조건은 거주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지리적 거주환경 요건은 여타 건강장수의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

하고 우선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사람은 거주환경을 선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주체적 위상을 가진 존재로서 파악되었다.

### III. 거주환경과 건강장수 조건에 대한 풍수적 이해 방식

동아시아에서 건강과 장수에 관한 주요 논의는 도가(道家)의 양생법이나 장생술, 의학, 풍수 등에서 발달하였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에 이상적인 거주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풍수는 거주환경이 사람의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통찰한 전문 분야로, 거주환경과 주택의 조건에 관하여 매우 정밀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기에 주목된다. 풍수론 중에도 특히 집터의 조건 및 집과 사람의 관계를 논한 주택풍수론에서 건강장수의 지리적·공간적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진다. 중국의 많은 풍수서에서 제기되었던 관련 내용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주거론 저술에 인용되었으며, 당시 조선사회의 거주환경 조건에 적용되어 논의가 더욱 발전되었다.

풍수는 중국과 한국에서 주거지를 선택하고 거주환경을 관리하는 데 활용되었던 문화요소 및 배경사상으로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후기의 시대적 배경과 경제적 조건 아래 풍수는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어 이상적인 삶의 터전을 선택하기 위한 이론적 수단과 사회적 담론으로 기능하였다. 홍만선, 유충립, 이증환, 서유구 등의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적 시대정신으로 중국의 풍수지식 중에서 유용한 면을 수용하여, 마을과 주택의 입지를 선정하고 집의 건축에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마을의 주민들은

11) 氣測體義, “神氣通”, 卷1, 體通.

풍수를 마을의 거주환경 관리를 위한 원리이자 지침으로 운용하였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저술에는 마을 혹은 집터 선택과 관련한 풍수론의 수용 태도와 내용이 잘 드러난다.<sup>12)</sup> 실학자들은 풍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주거관 및 거주환경에 관련된 주요 저술서는 대부분 중국 풍수서에 논의된 내용을 수용하고 있고 풍수적 사고 방식과 담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홍만선의 「산림경제」, 이종환의 「택리지」, 유증립의 「증보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등의 저술에 나타난 거주환경에 관한 논의는 조선후기에 전해지던 중국풍수서의 지식이 그대로 인용되거나 취사선택된 것이다.

풍수사상은 한국의 이상적 거주환경 관념이 잘 반영되었던 이상향 논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거주환경과 주거지를 가리키는 용어는 낙토(樂土), 복지(福地), 길지(吉地), 명당(明堂), 승지(勝地) 등이 있었다.<sup>13)</sup> 전통적 이상향들은 주로 명산에 분포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표적 이상향인 청학동이 지리산에 있고, 「정감록」의 십승지(十勝地) 들도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지리산 등지의 명산권 내에 주로 분포한다. 특히 전통적인 한국의 이상향은 산간분지[洞天福地] 입지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주요 장수촌이 산간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이상향의 지형조건과 건강장수마을의 실제적 분포의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산간분지형 이상향의 일반적 지형 패턴은, 조선시대 가거지(可居地)의 이상적인 취락입지 모형에서 준거가 되었던 풍수의 명당형국과 유사하며, 이것은 이상향의 지형 형국에 끼친 풍수사상의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산곡(山谷)에 입지하는 풍수명당의 지형조건은 동구(洞口)가 좁고, 안으로 들이 넓게 펼쳐진 목 좁은 항아리 같은 분지형 지세로 요약할 수 있으며, 특히 수구(水口)가 잠기고 안쪽으로 들이 열리는 것이 이상적 거주환경을 갖춘 마을 입지의 필수적인 지형 요건이었다. 이러한 지형 패턴은 중국의 무릉도원이나 한국의 청학동을 막론하고 산간분지형 이상향의 지형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최원석, 2009b: 749-750).

전통마을의 주민들도 지속가능한 마을의 거주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풍수를 문화생태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풍수적 마을환경의 관리방식은 환경용량(수용능력)의 기준과 적정 주거밀도의 유지, 환경관리(자연재해 방지와 자원환경의 보전), 토지이용 및 건축·생산활동의 규제, 환경에 대한 주민공동체의 집단적 의식과 태도의 형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최원석, 2011: 262-264).

그러면 조선후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던 중국의 주요 풍수이론서에 나타난, 건강장수의 공간적·장소적 조건과 그 이해 방식에 대해서 고찰해보기로 하자. 풍수론에서 거주환경과 건강장수의 상관적 이해 방식은 어떻게 나타날까? 중국의 전통사상에서 풍수와 의학의 논리체계와 토대는 같은 것이어서 서로 비유적으로 표현·설명되고 있으며, 풍수의 환경과 의학의 건강장수에 관한 인식은 직접적이고도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중국 명대에 저술되어 조선후기에 널리 읽힌 풍수서인 「인자수지」에서는 거주환경이 이상적인 장소의 지형적 조건을 인간사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2) 풍수론에 대한 기본적 태도와 입장을 보면, 홍만선과 유증립은 주택풍수론을 대체로 수용하는 경향이 보이고, 이종환과 서유구는 풍수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합리적인 내용만 수용하고자 하였음.

13) 낙토라는 용어에는 비옥한 농경지를 갖춘 농경제적인 속성이 있고, 복지는 피난피세의 사회적인 속성이 강한 데 비해 길지와 명당이라는 용어는 도참사상과 풍수사상이 투영된 표현임. 승지에 대해서는 「정감록」의 십승지 논의가 대표적임.

14) 박삼욱 외(2005: 202)에 의하면 전국 평균 이상의 표고와 산림보유지역에서 장수지역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산을 맥으로 일컬은 것은 어떠한 까닭인가? 사람 몸의 맥락은 기혈의 윤행으로 말미암아 타고나는지라, 맥이 맑은 자는 귀하고, 탁한 자는 천하며, 길한 자는 편안하고, 흉한 자는 위태롭다. 땅의 맥도 역시 그러하다. 훌륭한 의사는 사람의 맥을 살펴 그 사람이 편안한 상태인지 위태로운 상태인지, 생명의 길고 짧음을 아는 것처럼,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산의 맥을 살펴 그 길흉미덕을 아는 것이다.<sup>15)</sup>

위 인용문에 의하면, 한의학에서는 인체 경락에서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사람이 생기를 골고루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수에서 거주환경이 갖추어야 할 산의 맥도 맑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병을 진단할 때 망기(望氣)하고 진맥하며 몸에 이상이 있으면 혈맥을 찾아 침을 놓고 뜸을 떼서 병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수에서는 산줄기의 흐름을 보아 산천의 어느 부분이 허하고 결함이 있으면 보완하고 지나칠 때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렇듯 거주환경에 대한 풍수적 사고방식은 인체의 건강장수 조건과도 직결시켜 논의되었다. 총체성 속에서 인간의 삶과 활동을 조율하고자 한 중국 사유와 지혜(마르셀 그라네, 2010: 35)는 공간적 삶을 규정하는 풍수의 인식과 태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풍수의 일반적 원리이자 목적은 “풍기(風氣)를 갈무리하고 모은다”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풍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생기를 저장하는 국면을 조성하고 살기를

막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풍수의 명당 조건으로 왜 풍기가 모여야 하는지는 전통의학적인 측면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좋은 땅이란 일차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땅이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환경에 살풍(煞風)이 없어야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도 만병은 바람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한의학의 원전인 「황제내경」, 「소문」에도 “바람은 만병의 시초다”<sup>16)</sup> “바람은 만병의 가장 큰 요인이다”<sup>17)</sup> “바람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sup>18)</sup>는 등의 구절이 있으니, 모두 인체의 병은 바람에서 비롯한다고 경계하는 내용이다(최원석, 2004: 102-103).

중국 주택풍수서의 고전인 「황제택경」에서 건강장수의 공간적·지리적 조건에 대하여 어떤 철학적인 관점과 이해 방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땅이 좋으면 짝이 무성하고, 집이 길하면 사람이 번영한다”<sup>19)</sup>고 하여 집과 사람의 상관관계를 땅과 초목에 비유하여 거주환경의 직접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집은 음양의 중심이고 인륜의 본보기”<sup>20)</sup>라고 하여 집이 가지는 위상을 자연 질서와 인간 도덕의 중심 자리에 두었다. 또한 “집이라는 것은 사람의 근본이며 사람이 집으로 일가를 이루는데 주거가 안정되면 집안이 대대로 번창하고 길하나 불안하면 쇠망하고 만다”<sup>21)</sup>고 하여, 사람에게 있어서 집의 중요성과 주거의 안정이 집안의 번영과 쇠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켜 말하였다. “택법(宅法)은 재앙을 막고 화를 그치게 함이 마치 병을 고치는 약의 효험과 같은 것”<sup>22)</sup>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사람이 주체적으로 (주택)풍수법을 활용하

15) 地理人子須知, “論龍脈血砂名義”.

16) 黃帝內經, “素問”. 生氣通天論篇.

17) 黃帝內經, “素問”. 玉機真藏論篇.

18) 黃帝內經, “素問”. 風論篇.

19) 黃帝宅經.

20) 黃帝宅經.

21) 黃帝宅經.

22) 黃帝宅經.

여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어진 거주환경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開天命]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거주환경과 건강장수 조건에 대한 풍수의 논의와 이해는 후대로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구체화되었다. 중국의 주택풍수를 집성한 책인 「양택십서(陽宅十書)」에서는 집의 외형, 집터의 형태, 길의 조건, 수목의 형태, 하천의 조건, 연못 등의 조경 문제 등 다양한 실제의 공간적·장소적 조건을 건강장수와 관련시켰다. 주택과 거주환경을 구성하는 세부 조건이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지적된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 앞이나 집 뒤에 도랑물이 팔자(八字)로 나누어지거나 앞뒤에서 물이 나가서는 안 된다. 집주인에게 후사(後嗣)가 끊긴다. …… 집 문 앞에 연못을 새로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주인은 대가 끊어져 자손이 없게 된다. …… 큰 나무가 대문을 마주하면 주인에게 전염병을 불러들인다.<sup>23)</sup>

위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거지의 자연(도랑물), 인공(연못), 생태(수목) 등의 제반 조건은 건강장수와 직결되어 있다고 풍수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다만 그 설명 방식은 합리적인 인과나 논증이 아니라 경험적이거나 결과론적 증언 형식을 취하고 있어, 오늘날 이해방식으로는 납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풍수론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현대적 해석을 요하는데, 예컨대 위 인용문의 “큰 나무가 대문 앞에 마주하면 전염병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대문 앞에 큰 나무가 가리고 있으면 그늘져서 채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공기 순환을 막아 마당과 실내의 쾌적한 습도조절에 불리할 수 있고 따라서 보건위생에 좋지 않은 조건이 된다는 해

석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거주환경에 대한 풍수적인 이해 및 관리 방식을 살펴보았지만, 주택풍수론 자체가 근근대시기에 건강한 삶을 누릴 목적으로 논의된 경험적인 주거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거주환경에 대한 전통적 지식체계를 조선시대의 지식인들과 지역주민들은 지역환경에 맞추어 취사선택하며 생활공간의 지혜로 유용하게 활용하였던 것이다.

#### IV.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

현대적 건강장수도시의 거주환경은 오늘날의 경제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조건에 일차적으로 규정되지만, 전통적으로 어떤 공간적·지리적 조건을 살기 좋은 거주환경으로 인식했는지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상태는 과거 문화전통의 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긴요하게 참고될 수 있는 자료가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저술이다. 특히 18세기 초 홍만선의 「산림경제」(“복거”), 18세기 중반 이종환의 「택리지」(“팔도총론”·“복거총론”·“지리”)와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복거”), 19세기 초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상택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저술들은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서 이상적인 주거지와 거주환경의 공간적·장소적 조건에 관해 서술한 대표적인 성과다. 위의 저술 속에는 조선후기 유교 지식인들의 주거관이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환경의 지리적 입지(溪居·江居·海居 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상적인 주거지[可居地]에 대한 지역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도 당시 거주환경에서의 경험적이고 실용

23) 陽宅十書, “宅外形”.

적인 건강장수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집터 정하는 방법, 물과 토지의 문제, 생업과 주거, 풍속과 인심, 거주환경의 미학, 풍토병이 발생하는 토지조건과 지역정보, 피해야 할 주거지 조건 등과 같이 오늘날의 건강장수마을의 구성에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제 차례대로 각 저술의 주거관 및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와 아울러 건강장수와 관련된 서술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 1. 홍만선의 「산림경제」

홍만선(1643~1715)이 저술한 「산림경제」는 저자가 산림에서 살 생각으로 산지 생활사와 관련된 내용을 편집한 책이다.<sup>24)</sup> 이 책의 전체적인 성격은 산림처사를 자처하는 사족(士族)의 생활지침서이기도 하다(염정섭, 2002: 180). 따라서 이 책은 산림에서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주거, 생업, 양생, 보건 등의 내용을 망라한 지식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의 가치는 당시에 전해졌던 여러 문헌 자료들을 섭렵하여 처음으로 산지 생활사에 관한 지식체계를 종합하여 편찬했다는 데 있다.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당시의 지식인사회에 영향을 끼쳐 이후 유중립의 「증보산림경제」(1768)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19세기 초)의 저술로 이어졌다.

홍만선은 「산림경제」의 첫 부분에 “복거(卜居)”편을 두고 거주환경 및 주거지의 선택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저자의 주거관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거주환경의 요소가 되는 주거지의 지리·지형적 조건, 도로 조건, 대지의 형태, 주위 산수와 건조물의 환경, 조경 요소, 주거지 주위의 지형지세, 토질과 수질 등의 다양한 조건들이 주거지의

선택에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논의의 근거로 참고한 책들은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주로 읽었던 중국의 주택·주거 관련 서적들이었으며, 그 책의 내용은 주로 주택풍수서에 정리된 거주환경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다. 아쉬운 점은 기존에 중국에서 저술된 내용을 발췌·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자신의 해석과 견해가 드러나지 않은 것과, 이상적인 주거지에 대한 지역정보가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에 이종환, 유중립, 서유구의 저술에서는 그 한계가 보완되었다.

홍만선의 주거관과 거주환경 논의를 살펴보자. 그는 “터를 가려서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경솔하게 살 곳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거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적인 거주환경의 입지 지형은 “풍기(風氣)가 모이고 앞과 뒤가 안온하게 생긴 곳”이고, 그 구체적인 공간적 모형은 “안은 널찍하면서 입구는 잘록하여야 한다”<sup>25)</sup>고 하였다. 요컨대 구릉지나 산지의 분지 지형을 이상적 주거지의 입지 모델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풍수의 명당 형국과도 그대로 일치한다.

「산림경제」에서 이상적인 주택지의 거주환경이 되지 못하는 장소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거주환경의 불안정한 요소로 사회 조건, 문화 조건, 경관 조건, 자연 조건, 방재(화재) 조건 등의 장소적 성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주택에 있어서, 탐, 무덤, 절, 사당, 신사·사단(祀壇), 또는 대장간, 옛 궁터나 전쟁터는 살 곳이 못 되고, 큰 성문의 입구와 옥문을 마주보고 있는 곳은 살 곳이 못 되며, 벼거리의 입구라든가 산 등성이가 곧바로 다가오는 곳, 흐르는 물과 맞닿은 곳, 여러 하천이 모여서 나가는 곳과 초목이 나지

24) 山林經濟. 序.

25) 山林經濟. 卷1. “卜居”.

않는 곳은 살 곳이 못 된다. 옛길·영단(靈壇)과 신사 앞, 불당 뒤리든가 논이나 불을 땀던 곳은 모두 살 곳이 못 된다.<sup>26)</sup>

「산림경제」의 “복거”편에는 건강장수와 거주환경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도 여럿 보인다. 다음에 인용한 내용에서 거주환경 조건에 대한 길흉평가 속에는 건강장수의 관점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주택에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면 생기가 높은 터이고,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으면 부유하지는 않으나 귀(貴)하게 되며,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면 문호(門戶)가 켜지고, 뒤가 높고 앞이 낮으면 우마(牛馬)가 번식한다.<sup>27)</sup>

인용문에서 ‘주택지 지형에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면 문호가 켜진다’고 하여, 이러한 지형의 택지는 건강하게 지속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입지경관에서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면 채광이나 배수가 불리하다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제」 “복거”편에 수록된 글은, 저자인 홍만선이 기존의 저술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인용한 것들로 보인다. 여기에는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주거관과 이상적인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 2. 이종환의 「택리지」

이종환(1690~1752)의 「택리지」는 한국적 취락입

지 모델을 추구한 지리서로서, 건강장수마을의 한국적 원형 탐색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이론서다. 이 책의 복거론에는 조선후기의 실학적 유교지식인 이종환의 주거관이 집약되어 있고, 팔도론에서는 조선후기의 전국적 거주환경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전개되었다. 이 책은 기존의 풍수서에 서술된 터 잡기의 논리 체계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조선후기의 사회역사적 조건과 현지의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마을입지론을 독창적으로 체계화한 저술이다. 「택리지」의 창의성은 ‘마을’이라는 공동체적 공간단위에서도 돋보인다. 이 책 전후에 편찬된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등은 모두 개인주택의 주거에 대해서 논의한 저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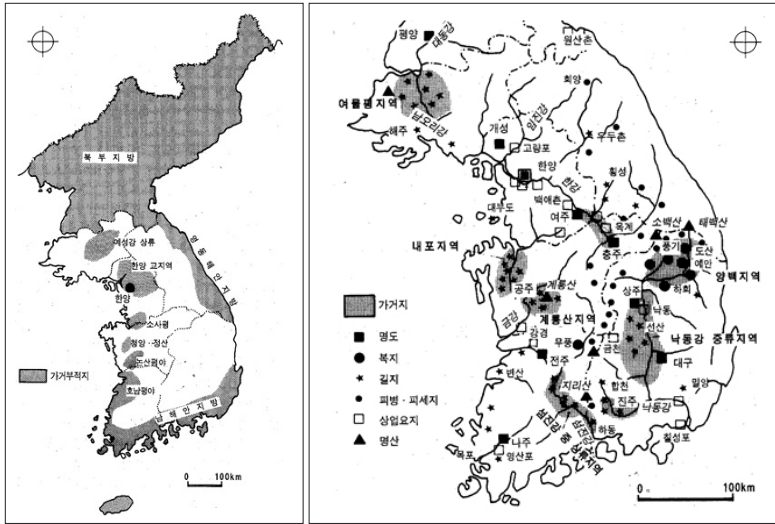
「택리지」의 거주환경 논의가 지니는 또 다른 중요성은 지리적 입지환경을 계거(溪居)·강거(江居)·해거(海居)로 일반화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과, 거주환경 조건에 대해서 가거적지, 가거부적지로 구분·평가하고 지역 정보를 수록하였다는 점이다(〈그림 1〉). 가거지여부의 판단근거는 이종환이 들었던 지리·생리·인심·산수의 4대 조건이며, 여기에는 농업환경(지형·기후·토질 등), 교통 및 지리적 위치, 주민의 교양과 풍속, 산수미학, 보건위생(장기)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조선후기의 이러한 거주환경 논의의 성과는 이후의 「증보산림경제」나 「임원경제지」에 비중 있게 반영되었다.

이종환은 마을을 이루어 살 만한 곳[可居地]의 지리적 입지환경을 시냇가 거주[溪居], 강가 거주[江居], 바닷가 거주[海居] 순으로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조선후기의 농경사회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조건이나 당시의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 수준을 감안한다면 시냇가가 마을입지에 최적의 환경임을 이해할 수

26) 山林經濟, 卷1. “卜居”.

27) 山林經濟, 卷1. “卜居”.

그림 1\_ 「택리지」의 가거부적지와 가거지



자료: 최영준, 1997, pp89-93.

에 대해 상세히 논의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지리적 거주환경[地理]'은 가장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그는 마을입지에 있어서 아무리 경제적 여건과 교통적 조건이 좋아도 지리적 거주환경 조건이 좋지 않으면 가거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을입지에 있어서 경제 및 교통 조건에 선행하여 지리적 거주환경의 필요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인용문에는

있다. 강기는 들이 넓고 수운이 편리하며 교역이 발달하므로 도화나 상업취락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 많았다(최영준, 1997: 91). 바닷가에 사는 것이 불리한 까닭은, 바다 가까운 곳에 학질과 염병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중환은 보건위생 조건과 관련지어 이해했다.<sup>28)</sup> 「임원경제지」에서 서유구도 바닷가의 거주환경이 갖는 불리한 측면을 식수원과 관련시켜, “바다에 가까운 지역은 풍기가 아름답지 않기도 하지만 물이 짠 경우가 많아 우물물과 샘물이 맛이 좋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sup>29)</sup>고 말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조선후기의 장수건강마을이 갖추어야 할 거주환경의 입지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중환의 주거관이 반영된 것으로서, 「택리지」에는 조선후기에 사대부가 살 만한 마을이 갖출 입지 조건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삶터를 선택하는 데에는 지리(地理)가 으뜸이고, 생리(生利)가 다음이며, 다음으로 인심(人心)이고, 다음으로 아름다운 산수(山水)다.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낙토(樂土)가 아니다.<sup>30)</sup>

이어서 이중환은 이상적 거주환경을 갖춘 마을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지형적인 입지요소를 수구(水口), 야세(野勢), 산형(山形), 토색(土色), 수리(水理), 조산(朝山)과 조수(朝水)라는 여섯 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차례대로 검토하면서 현대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sup>31)</sup>

첫째, 수구<sup>32)</sup>요소는 마을입지 요건 중에서 가장 우

28) 擇里志, “忠淸道”.

29)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占基.

30) 擇里志, “卜居總論”.

31) 본문의 「택리지」에 관련된 기본 내용은 최원석(2010)을 기초로 하였으나 현대적 해석은 대폭 보완된 것임.

32) 수구란 마을터 안의 하천이 합쳐져 밖으로 흘러 나가는 곳임.

선적이고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이중환은 이상적인 마을의 거주환경을 선택하고자 할 때 “먼저 수구를 보라”<sup>33)</sup>고 말하고, ‘빗장잠긴 수구[水口關鎖]가 가거지 입지의 제1지형적 요건이 된다고 하였다.<sup>34)</sup> 그리고 산간분지가 아닌 들판에서는 거슬러 흘러드는 물[逆水]<sup>35)</sup>이 수구를 대신한다고 하였다. 그의 수구 논의를 인용해보자.

수구가 이지러지고 텅 비고 열린 곳은 비록 좋은 논밭이 만 이랑이고 큰집이 천 칸이나 되더라도 대개는 다음 세대까지 잇지 못하고 자연히 흩어지고 망한다.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눈여겨보아서 구할 것이다. …… 들판에는 수구가 굳게 닫힌 곳을 찾기 어려워니 거슬러 흘러드는 물이 있어야 한다.<sup>36)</sup>

마을 입지경관의 수구 조건은 지형적·자연생태적·미기후적·환경심리적으로 함축적인 의미와 가치를 포함한다. 수구가 잠겨 있는 지형 조건은 수자원 확보(용수구득 용이), 취락의 침수 및 토양 유실 방지, 배수 용이, 생태적 보전, 방풍·온열 효과, 주거심리 안정 등과 같은 거주환경의 긍정적 입지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이 된다.

둘째, 야세<sup>37)</sup> 요소는 마을 입지지형에서 요구되는 체광 및 미기후 조건에 대한 논의로 해석될 수 있다. 충분한 일조시간은 거주민의 정신건강과 작물의 생육과 깊은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택리지」에서 야세 요

건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사람은 양명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는바, 하늘은 양명한 빛이니 하늘이 조금만 보이는 곳은 결코 살 곳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들은 넓을수록 터는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빛이 항상 환하게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더운 기후가 고르게 알맞은 곳이면 인재가 많이 나고 또 병이 적다.

셋째, 가거지의 선정 기준으로 마을 입지경관의 산 모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중환이 눈여겨본 점은 주거지 주위의 산이 살기를 띠고 있는지 여부였다.<sup>38)</sup> 이러한 논의는 거주환경이 갖춰야 할 환경(경관)미학적 측면으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자연경관미가 주민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도 「택리지」 발문에서 “산천이 탁하고 추악하면 백성[民]과 물산(物産)에 빼어난 것이 적고 뜻이 맑지 못하다”<sup>39)</sup>며 산천의 기운과 모습이 인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이중환은 거주환경의 산 모양을 살피는 논의를 다음과 같이 펼쳤다.

산 모양은 주산(主山)이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아담한 것이 제일 좋다. …… 가장 꺼리는 것은 산의 내맥이 약하고 둔하면서 생생한 기색이 없거나, 산 모양이 부서지고 비뚤어져서 길한 기운이 적은 것이다. 땅에 생생한 빛과 길한 기운이 없으면 인

33) 擇里志, “地理”.

34) 擇里志, “地理”.

35) 역수란 터 앞으로 물길이 서로 만날 때 평행하는 순방향이나 교차하는 역방향으로 만나는 물줄기의 형태를 일컫음.

36) 擇里志, “地理”.

37) 이중환이 말했지만, 여기서 들[野]은 지형적으로 “주위에 낮은 산이 둘러 있는 들판”(擇里志, “地理”)을 일컫음.

38) 예컨대 “금강 북쪽과 차령 남쪽은 땅은 비록 기름지나 산이 살기를 벗지 못하였다”(擇里志, “忠淸道”)는 등의 표현이 있음.

39) 輿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第14卷, 文集, 跋, “跋擇里志”.

재가 나지 않는다. 이따로 산 모양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sup>40)</sup>

인용문 중에서, '산 모양이 부서지고 비뚤어진 곳은 길한 기운이 적다'라는 표현은 현대적으로, 지각 변동으로 불안정하면서 산사태의 가능성이 높은 산지 지형은 취락입지에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박이준, 2001: 296).

「택지리」에는 산의 모양뿐만 아니라 특정 마을에 대해 시냇물 소리를 평가하여 낙토(樂土) 여부를 가리는 언급도 눈에 띈다. “미원촌은 …… 앞 시냇물이 너무 목 멘 듯한 소리를 내니 낙토가 아니다”<sup>41)</sup>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현대적으로도, 청각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소리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이론의 ‘소리 쾌적성(Sound Amenity)’ 논의와 맞닿아 있어 충분히 합리적 관점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sup>42)</sup>

넷째, 이중환은 토색<sup>43)</sup>을 평가하여 가거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당시 토질과 흙 색깔은 식수원 및 배수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에 건강장수의 지표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

토색이 사토(砂土)로서 굳고 촉촉하면 샘물 역시 맑아서 살 만하다. 붉은 찰흙이나 검은 자갈돌이나 누른 가는 흙(細土)이면 모두 죽은 흙이라서 그 땅에서 나오는 우물물은 반드시 장기(嵐氣)가 있으니 이러한 곳이면 살 수 없다.

위 인용문을 해석해보면, 이중환이 좋은 토질로 평가한 사토(砂土)는 화강암 풍화토로서 수질정화에 유리하다. 반대로 색이 진한 흙은 토양 속에 철분, 망간 등의 불순물이나 유기물이 있어 식수로 부적합한 경우다(전영권, 2002: 266). 특히 ‘검은 자갈돌로서 죽은 흙’이라고 표현한 것은 검은 자갈돌이 섞여 있는 토양은 유기물이 풍부한 하천변의 충적토인데, 여기서 나오는 식수는 부영양화로 인한 수인성 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거지의 토질과 흙 빛깔에 관해서 서유구도 「임원경제지」에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며 언급하였다. 그는 사람의 주거는 흰 모래땅이 적합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밝고 정결한 흙이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배수가 좋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황토색으로 윤기가 흐르는 모래흙이 좋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검은 흙은 초목을 심는 땅으로는 적합하지만 거처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으로 보았다. 특히 비가 오면 미끄러운 진흙탕이 되는 검푸르고 붉은 점토는 거처해서는 안 되는 토질로 경계하였다.<sup>45)</sup>

다섯째, 이중환은 마을 입지요인의 하나로 수리(水理)를 논하였다. 다음 인용문 아래에 표현되고 있듯이 지속가능한 마을환경이 갖출 입지요건에서 풍부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는 필수적인 구비요소이다.

물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산은 물과 짝한 다음에라

40) 擇里志, “地理”.

41) 擇里志, “地理”.

42)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라는 개념은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소리를 하나의 풍경으로 파악하는 사고로서, 개인 또는 특정의 사회가 지각하는 소리환경으로 정의됨(한명호, 2003: 252). 1960년대 말 캐나다의 머레이 셰이퍼(Raymond Murray Schafer)가 소음 공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처음 제창하였고, 환경 및 생태적 흐름과 연관됨.

43) 여기서의 토색은 흙의 색깔과 토질 조건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임.

44) 擇里志, “地理”.

45)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占基.

야 생성하는 묘함을 다할 수 있다. 물은 반드시 흘러오고 흘러감이 지리에 합당해야 정기를 모아 기르게 된다. …… 비록 산중이라도 또한 시내와 산골짜기가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 대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터가 된다.<sup>46)</sup>

여섯째, 이중환은 끝으로 가거지 마을이 갖추어야 할 지리적 입지요소 중에서 조산(朝山)과 조수(朝水)를 서술하였다. 조산과 조수로 지칭된 주거지 앞의 산수경관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환경미학, 경관생태학, 하천역학, 지형재해 및 수재예방 등의 측면에서 현대적인 논리로 재해석될 수 있다.

조산에 돌로 된 추악한 봉우리가 있든가, 비뿔어진 외로운 봉우리가 있거나, 무너지고 떨어지는 듯한 형상이 있든지, 옛보고 넘겨보는 모양이 있거나, 이상한 돌과 괴이한 바위가 산 위어나 산 밑에 보이든지, 긴 골짜기로 되어 기가 충돌하는 형세의 지맥이 전후좌우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 조수라는 것은 물 너머의 물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냇물이나 작은 시냇물은 역으로 흘러드는 것이 길하다. 그러나 큰 냇물이나 큰 강이 역으로 흘러드는 곳은 결코 좋지 못하다. …… 구불 구불하게 길고 멀게 흘러 들어올 것이고, 일직선으로 활을 쏘는 듯한 곳은 좋지 못하다.<sup>47)</sup>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지만, 이중환은 조선후기에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던 풍수론과 경험적 주거지식을 검토하여 전국의 거주환경에 대해 검토하여 논의하였고, 마을입지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

다. 그의 마을입지론은 한국적 지형환경과 지역조건에 적용된 것으로서, 앞으로 한국형 건강장수마을의 입지선정에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참고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 3.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

이 책은 유중림이 1766년에 홍만선의 「산림경제」를 증보하여 엮은 책이다. 책의 저술 의도는, “조만간 관직을 버리고 이 몸을 한가한 들이나 적막한 강가에 맡기어 나의 품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나의 남은 세월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는 데 이 책을 사용할 것”<sup>48)</sup>이라는 서문을 통해 엿볼 수 있듯이, 유중림은 산림 처사로 살 생각으로 산지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총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내의(內醫)로서 의술에 종사했던 그의 경력은 이 책에서 건강장수의 섭생과 관련한 자세한 서술의 바탕이 되었다. 이 책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도 수용되어 본문의 주요 내용이 인용·수록된 바 있다.

「산림경제」와 이 책을 비교해볼 때 책의 분량은 「산림경제」의 두 배가 넘고, 주제도 다섯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농촌진흥청, 2003: 6-7). 편찬 방식과 목차의 순서도 다소 다르다. 이 책에 수록된 거주환경에 관한 논의는 많은 부분이 「산림경제」 “복거”에 나오는 내용을 재수록한 것이지만 새로 보완한 것도 있다. 거주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지역정보에 관하여 「택리지」의 내용과 「정감록」의 십승지(十勝地) 내용도 책 끝에 따로 덧붙였다. 다만 “복거”편의 저술에서 대부분의 증보된 내용 역시 기존의 중국 풍수서와 주택 관련 서적에서 인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아쉬운 점은 자신

46) 擇里志, “地理”.

47) 擇里志, “地理”.

48) 增補山林經濟, 序.

의 견해 없이 기존의 저술을 인용하였을 뿐이고 그나마 출처도 밝히지 않은 점이다.<sup>49)</sup>

거주환경 논의와 관련하여 “복거”편에는 술수적인 내용도 대폭 추가되었다. 터 잡기와 집짓기에 대한 풍수 내용이 대폭 보완된 것은 관련 지식정보의 보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 주택풍수서의 화복설(禍福說)을 검토 없이 수록한 문제점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와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 풍수적 주거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증보산림경제」는 「산림경제」의 편제와는 달리 책의 끝부분에 “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 “남사고십승보신지(南師古十勝保身地)”, “동국승구록(東國勝區錄)”을 신고 당시 이상적인 거주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알려진 지식정보를 수록하였다. “동국산수록”과 “동국승구록”은 이증환의 「택리지」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대로 전재한 내용이고, “남사고십승보신지”에는 「정감록」에 나오는 남사고 비결을 수록하고 끝에 본인의 생각을 달았다. 유증림은, “일반적으로 재난이 닥치지 않는 지역을 복지(福地)라고 일컫는다”고 하면서, “십승지는 경제적 조건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도록 태평한 시기가 있었기에, 살만한 곳을 미리 생각하는 것 역시 군자가 길함을 추구하여 몸을 잘 보존하는 길이 아니겠는가”<sup>50)</sup> 라고 조선후기 유학자로서의 주거관을 밝혔다. 이로써 볼 때, 당시에 「정감록」의 십승지 담론은 피난보신처를 찾으려는 민중들의 주거관뿐만 아니라, 산림에 은거하고자 하는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

을 끼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증림의 거주환경 관련 논의는 이 책의 “복거”편에 종합되어 있으며, 그의 주거관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홍만선의 「산림경제」 “복거”의 체제와 내용에 비하여 상세하게 소재목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집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자연적 요소로 지세, 평지와 산골짜기[山谷]의 지형적 입지, 집터의 지형 및 방위, 토양, 물과 수구, 집터 주위의 산 모양, 바람의 방향 등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주거지에 알맞은 장소 등을 상세히 논의하였다.<sup>51)</sup> 또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 재료의 준비와 선택, 공사하는 데 좋은 날, 주택 요소들의 조성 및 배치 등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건강장수와 관련하여 거주환경을 서술한 내용을 몇 가지 인용해 보자.

집터가 큰 산 가까이 있으면 신사래를 당할 위험이 있다. 강이나 바다에 가까이 있으면 물이 범람할 염려가 있고, 물이 나빠서 풍토병이 심하고 땀 나무하기에도 불편하다.<sup>52)</sup>

집터의 동북쪽[艮]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전염병과 풍토병이 생긴다. 동남쪽[辰·巽]에서 불어오면 집주인이 두풍(頭風)을 앓고 …… 서남쪽[未]에서 불어오면 결핵을 앓고 기침을 하며, 서북쪽[戌·乾]에서 불어오면 절름발이가 생긴다.<sup>53)</sup>

남동쪽(乾坐)으로 배치된 집에서 동남쪽[巽]과 북

49) 책의 본문에는 인용한 책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 추가한 내용이 자신의 견해인지 아닌지는 기존의 책을 대조해야 드러남. 저자가 취사선택하여 인용한 데서 간접적으로 그의 편집 의도와 생각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임.

50) 增補山林經濟. 卷16. “南師古十勝保身地”.

51) 「증보산림경제」 “복거”편에서 터 잡기와 관련된 세부 목적지는 論地勢, 論平地陽基, 論山谷陽基, 相址, 址宜, 壤驗, 水應, 論風射方, …… 陽居雜法補遺 등으로 편제되어 있음.

52) 增補山林經濟. 卷1. “卜居”.

쪽[坎]으로 문을 내면 남녀가 전염병을 앓게 된다. 동쪽[兌坐]으로 지은 집에 남쪽[離]으로 문을 내면 폐결핵에 걸린다. 북쪽[離坐]으로 지은 집에 북쪽[坎]으로 문을 내면 장수하고 건강하나 북서쪽[乾]으로 문을 내면 병이 생기며, 동북쪽으로 문을 내면 풍질을 앓고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생긴다.<sup>54)</sup>

유증림이 거주환경과 집터 잡기에 관해 추가한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의 주택풍수서에 서술된 것으로, 중국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에 기초한 지식이기 때문에 조선에 그대로 적용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보이는, 입지환경에서 유발된 자연재해나 보건위생의 영향처럼 현대적인 견지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인용문처럼 술수적으로 바람 방향과 재해·질병의 관련성, 주택 배치와 건강장수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논의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 4.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는 조선후기의 사대부가 사골에서 자족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을 탐색한 것이다(심경호, 2009: 6).

이 책의 “상택지(相宅志)”편에는,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의 복거론과 「택리지」의 복거론·팔도론을 채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타 문헌을 대폭 참고하고 자신의 논의를 개진하였다. “상택지”편에 나타난 서유구의 주거관 및 거주환경 논의의 가치

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선의 현실에 적용할 주제적 관점을 견지한 점, 거주환경 조건과 지리적 입지환경 유형에 대한 논의에 충실을 기한 점, 전국의 이상적인 주거지 지역정보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점, 술법적인 풍수를 배격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한 주거관 등이다.

서유구는 중국의 주거 및 풍수 관련 저술들과<sup>55)</sup> 조선에서 출간된 선행연구인 「산림경제」·「증보산림경제」·「택리지」<sup>56)</sup> 등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견해를 보완하거나 새로 자신의 견해까지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더욱이 저자가 이 책의 저술 의도를 밝히고 있듯이, 과거에 중국에서 쓰이던 것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조선에서 쓰일 수 있는 방도만을 수록하고자 했기에,<sup>57)</sup> 「산림경제」(“복거”) 및 「증보산림경제」(“복거”)가 중국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던 것과 대비해 이 저술의 주제적인 관점이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임원경제지」 “상택지”의 구성을 ‘터 잡기[占基]와 집짓기[營治]’, ‘팔도명지[八域名基]’ 두 부분으로 나눈 후 조선후기의 이상적인 거주환경 조건들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서유구의 주거관이 잘 드러나 있는 ‘터 잡기와 집 짓기’ 장에는 집을 짓기에 적합한 장소 선택과 집의 조영방법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터 잡기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각론은 지리, 물과 토지[水土], 생업의 이치[生理], 풍속과 인심[里仁], 뛰어난 경치[勝概], 피해야 할 장소[避忌] 등 세부 주제별로 분류

53) 增補山林經濟. 卷1. “卜居”.

54) 增補山林經濟. 卷1. “卜居”.

55) 주거 관련 서적으로는 「居家必用」, 「山居錄」 등이 있고, 풍수서로는 「相宅經」, 「陽宅吉凶書」, 「陰陽書」, 「地理全書」 등이 있음.

56) 「林園經濟志」에서는 「八域可居地」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책은 일반적으로 「擇里志」로 알려져 있음.

57) 林園經濟志. 例言.

하여 가거지 선택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이증환이 「택리지」에서 총론, 지리, 생리, 인심, 산수로 나눈 것을 바탕으로 하며, 내용 속에는 마찬가지로 유교지식인의 주거관이 반영되어 있다. 책의 편제가 백과전서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택리지」에 비해 전체적인 체계성과 논리적 구성도는 미치지 못하나, 내용상으로 더 잡는 방법론 논의는 더 상세한 편이다. 그리고 집짓기는 황무지개간[開荒], 나무심기[種植], 건물배치[建置], 우물·연못·도랑[井池溝渠]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서유구의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가 집약된 ‘팔도명지’ 장에서는 팔도총론[八域總論], 명지소개[名基條開], 명지평가[名基品第]로 나누어 상세히 서술되었다. 팔도명지의 편제에 대해 “수신(修身)하는 선비가 살거나 다닐 때 가리고 선택할 곳을 알도록 하기 위함”<sup>58)</sup>이며, 이것은 “올바른 일상의 삶에 도움이 될 것”<sup>59)</sup>이라고 그 실용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팔도총론에서는 경기·호서·호남·영남·관동·해서·관서·관북의 8개 권역으로 지역 구분을 한 후 거주환경과 가거지 조건을 서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택리지」 “팔도총론”을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특히 명지 소개에서는 전국의 230곳에 이르는 가거지와 명승지(경기 81곳, 호서 56곳, 호남 17곳, 영남 24곳, 관동 41곳, 해서 5곳, 관서 3곳, 관북 3곳)를 열거하고 있기에 주목된다(〈표 1〉 참조). 그 비율을 보면 중부지방(67%)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남부지방(18%)의 비중은 낮으며, 북부지방(5%)은 희소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명지에 대해서

는 인용 출처, 위치, 지리환경, 사회·역사·문화, 토지 비옥도 및 생산성, 현황 등을 약술하고 일부 장소는 가거지 여부의 평가도 덧붙였다. 인용한 주요 자료는 가까운 벗이었던 성해응의 저술인 「명오지(名塢志)」<sup>60)</sup>와 이증환의 “팔역가거지”(「택리지」)가 있고, 특히 서유구가 자신이 편찬했던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sup>61)</sup>를 활용하여 72곳의 장소를 추가 수록하였다. 그 밖에 부분적으로, 1790년에 이만우가 완성한 「문헌비고」(“여지고”)와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 기타 기문(記文) 등을 참고하였다.

이어서 명지평가에서는 거주환경을 입지조건별로 나누어 ‘강가 거주 논의[論江居]’ ‘시냇가 거주 논의[論溪居]’ ‘산 거주 논의[論山居]’ ‘호숫가 거주 논의[論湖居]’ ‘바닷가 거주 논의[論海居]’ ‘시내·강·바닷가 거주 종합논의[合論溪江海居]’를 펼치고 각각의 거주환경 조건을 평가하였다. 거주환경의 입지조건별 논의를 편제한 것도 「택리지」에 비해 의미 있는 일이고, 산·호숫가 거주 논의 및 시내·강·바닷가 종합논의를 더하여 구성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문의 서술은 “팔역가거지”(「택리지」)의 논지를 따르고 내용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본인의 「금화경독기」 관련 내용도 포함시켜 논의를 충실하게 하였다.

서유구가 새로 보완한 부분은 호숫가와 바닷가 거주 논의인데, ‘호숫가 거주 논의’에서는 관동의 여섯 호수 권역, 호서의 홍주(洪州)와 제천, 호남의 익산과 김제, 영남의 용궁, 해서의 연안(延安) 등지 호숫가를 들어 가거지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바닷가 거주 논의’에서는, 국토의 해안과 섬의 거주환경을 약

58) 林園經濟志, 相宅志引.

59) 林園經濟志, 相宅志引.

60) 研經齋全集, 外集 卷64, “雜記類”. 전국의 이름난 마을과 명승지에 대해 소개한 기록임.

61) 「금화경독기」는 서유구가 저술한 백과전서식 책으로 전체 8권이다. 2010년에 도쿄도립중앙도서관에서 7권 7책이 발견되었음. 8권에 “상택지”와 관련된 해당 내용이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결락되었음.

표 1\_ 「임원경제지」의 팔도명지[八域名基]

도	명지(지역)	인용 출처
경기 (81곳)	樓院村(양주), 望海村(양주), 靑龍洞(양주), 松山(양주), 沙川廢縣(양주), 三佳臺(양주), 柯亭子(양주), 盤谷(양주), 豐壤(양주), 兎院(양주), 石室院村(양주), 平邱驛村(양주), 蘆原(양주), 榛茂村(양주), 南一原(양주), 花山(포천), 梨谷(포천), 樹谷(포천), 金水亭(영평), 蒼玉屏(영평), 周原(영평), 白鷺洲(영평), 白雲洞(영평), 農巖(영평), 燕谷(영평), 花峴(영평), 龍虎洞(영평), 朝宗(가평), 淸平川(가평), 晚翠臺(가평), 鏡盤(가평), 秘琴山(가평), 陵隅村(가평), 鑑湖(양근), 歸來亭(양근), 藥溪(양근), 龍津(양근), 迷原(양근), 鳳凰臺(지평), 巢溪(지평), 長生洞(지평), 幸州(고양), 三聖堂(고양), 峴村(고양), 馬山驛村(파주), 花石亭(파주), 牛溪(파주), 來蘇亭(파주), 龍山(장단), 亭子浦(장단), 基一村(장단), 靈通洞(장단), 湘水村(적성), 梅花谷(적성), 澄波渡(마전), 朔寧邑村(삭녕), 溪亭(삭녕), 驪州邑村(여주), 梨湖(여주), 川寧(여주), 蔴蘿里(여주), 長海院(음죽), 安城邑村(안성), 金嶺村(용인), 琵琶湖(용인), 板橋村(광주), 斗峴(광주), 石林(광주), 藍于谷(광주), 獐項(광주), 鶴灘(광주), 鴨鷗亭(두모포 南岸), 夙夢亭(두모포 南岸), 紫霞洞(과천), 月波亭(과천), 獐項(안성), 聾窞里(광주), 大阜島(남양), 薪谷(김포), 十勝亭(통진), 仙源(강화)	名鳩志 金華耕讀記 南雷淵游洞陰記 文獻備考(輿地考) 金農巖晚翠臺記 八域可居地
호서 (56곳)	靑蘿洞(보령), 伽倻洞(덕산), 板橋川(서산), 聖淵部曲(서산), 武陵洞(서산), 合德堤(충주), 化城(충주), 廣川(충주), 葛山(충주), 花溪(남포), 聖住洞(남포), 儒城(공주), 敬天村(공주), 利仁驛(공주), 維鳩村(공주), 四松亭(금강 上), 江景浦(은진), 市津浦(은진), 鎭浦(서천), 扶餘邑村(부여), 王津(정산), 貢稅倉村(아산), 溫陽邑村(연산), 豐餘村(전안), 九老洞(청주), 鶴川(청주), 山東(청주), 松面村(청주), 利遠津(회덕), 黃山(연산), 安平溪錦溪龍華溪(영동), 梨花村(영동), 物閑里(황간), 十梨院(옥천), 館塗(보은), 楓溪村(회인), 龍湖(옥천), 彩霞溪九龍溪(옥천), 荊江(문의), 孤山亭(괴산), 鎭川邑村(진천), 艸坪(진천), 石室(진천), 候山亭(제천), 黃江(정풍), 桃花洞(정풍), 舍人巖(단양), 雲巖(단양), 金遷(충주), 嘉興(충주), 北倉(충주), 木溪(충주), 內倉(충주), 秣馬村(충주), 大興鄉校村(대흥), 水石洞(청양)	名鳩志 金華耕讀記 文獻備考(輿地考) 宋樸川龍湖記 八域可居地
호남 (17곳)	栗潭(전주), 鳳翔村(임파), 黃山村(여산), 西枝浦(임파), 景陽湖(광주), 復興村(순창), 星園(남원), 九灣村(구례), 珠峯川(응암), 濟原川(금산), 長溪(장수), 朱溪(장수), 邊山(부안), 法聖浦(영광), 靈山江(나주), 月南村鳩林村(영암), 松亭(해남)	名鳩志 金華耕讀記 八域可居地
영남 (24곳)	歸來亭(안동), 三龜亭(풍산), 河回(풍산), 奈城(안동), 春陽村(안동), 壽洞(안동), 玉山(경주), 良佐洞(경주), 陶山(예안), 靑松邑村(정송), 竹溪(순흥), 瓶川(문경), 花開洞(진주), 岳陽洞(화개동 곁), 琴湖(대구), 密陽邑村(밀양), 海平村(선산), 甘川(선산), 伽川(청주), 鳳溪(김산), 利安部曲(함창), 稼亭舊基(함창), 月城村(덕유산), 零潭(상주)	名鳩志 南藥泉嶺南雜錄 金華耕讀記 宋樸川月城記 江漢集
관동 (41곳)	臨溪驛村(강릉), 鏡浦(강릉), 大隱洞(강릉), 海鹹池(강릉), 大野坪(영월), 餘糧驛村(정선), 酒泉古縣(원주), 稚岳(원주), 獅子山(원주), 興原倉(원주), 德隱村(원주), 五相谷(원주), 玉山(원주), 龜石亭(원주), 挑川(원주), 玉溪(원주), 月灑(원주), 山峴(원주), 丹邱(원주), 橋項(원주), 霽日村(황성), 茅坪里(황성), 橫城邑村(황성), 粉谷(홍천), 瑞石(홍천), 虎鳴里(춘천), 泉田(춘천), 牛頭村(춘천), 麒麟故縣(춘천), 琴谷(금성), 松亭(김화), 下北占里(회양), 仙倉村(철원), 舉城(안협), 四堅村(안협), 廣福洞(이천), 佳麗州(이천), 浦內(이천), 龜塘(이천), 古密雲(이천), 亭淵(평강)	名鳩志 金華耕讀記 緯史 於于野談
해서 (5곳)	石潭(해주), 水回村(송화), 采村(신계), 花川洞(평산), 舟邱(토산)	名鳩志 金華耕讀記 八域可居地
관서 (3곳)	檜山(성천), 古香山(영변), 唐村(중화)	文獻備考(輿地考) 於于野談 金華耕讀記
관북 (3곳)	錦水村(고원), 廣浦(함흥), 蛤浦(안변)	於于野談 南藥泉北閔十承圖記 金華耕讀記

주: 밑줄은 서유구 본인의 「金華耕讀記」를 인용한 것으로 구분해 표시함.  
 자료: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八域名基.

술한 후, 가거지와 가거부적지를 논의하였다. 그는 영호남의 연해(沿海) 도서는 풍토병(瘴氣)과 해충이 있고 왜구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서해는 선박이 수시로 정박하기 때문에, 관동의 북쪽 연안은 바닷바람이 거세고 물이 부족하며 왜선이 이르기 때문에, 또 동해의 섬들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거부적지라고 논하였다. 다만 강화도는 해양교통의 요충지로 상인들이 모여들고, 남양의 대부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수산 자원이 풍부하여 주민들이 부유하기에 가장 좋다고 하였다. 두 곳은 세상을 피해서 은거할 곳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호서의 내포에 있는 여러 고을과 해서 의 연안과 백천 등지도 가거지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남해안의 남해 금산동(錦山洞)과 동해안의 양양, 간성, 울진, 평해 등의 명승지에 대해 논의했다.<sup>62)</sup>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서유구의 주거관을 살펴보면, 거주환경 논의에 대해서 유교지식인이자 생활인으로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접근하였으며, 당시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술수적 견해를 경계하고 버리기를 권고하였다. 그는 “향배(向背)와 순역(順逆)의 자리를 따지고 오행(五行)과 육기(六氣)의 운수를 살피는 오늘날의 술수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자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군자는 술수를 취하지 않는다”<sup>63)</sup>라고 하면서, “아직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나지 않은 길을 고지식하게 믿고 따라서 그런 짓거리에 폭 빠져 있을까? 집터를 선택하는 자는 이런 짓을 버리는 것이 옳다”<sup>64)</sup>라고 술법 풍수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입장을 “상택지”의 첫머리에서 밝혔다.

생활에 긴요한 집터의 선택에 있어서도 실용적 견지로 권고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장래의 회복을 가지고 눈앞에 닥친 절실한 문제를 덮어둘 수 없다. 집터를 찾고 논과 밭을 구할 때에 샘물이 달고 토지가 비옥한 땅을 얻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혀 물을 필요가 없다”<sup>65)</sup>고 하여, 실사구시적인 학문자세와 이용후생의 주거관을 견지하였으나 풍수의 회복설은 경계하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서유구에게 있어서 주거지 선택방법은 생활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서, 춥고 따뜻한 방향을 따져보고, 물을 마시기가 편안하지만 살펴보면 충분하였다.<sup>66)</sup> 집터에서 필요한 요소는, ‘샘물이 달고 토지가 비옥한 곳’으로 표현된 양호한 식수원과 비옥한 농경지로 요약되는데, 그 이유는 “샘물이 달지 않으면 거처함에 질병이 많이 생기고, 토지가 비옥하지 않으면 물산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sup>67)</sup>이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주거지를 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조건과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상적인 거주환경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산 높이, 주택 외형, 지형경관, 생태경관, 수자원, 경작 조건, 경관미, 이상적 주거(마을) 규모, 주민의 교양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변의 산은 높더라도 험준하게 솟은 정도가 아니요 낮더라도 무덤처럼 가라앉은 정도가 아니어야 좋다. 주택은 화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사치한 정도가 아니요 검소하더라도 누추한 정도는 아니어야

62)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八域名基.

63)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占基. 이하 본문의 「林園經濟志」 인용문은 <서유구, 2005. 산수 간에 집을짓고, 안대희 편역. 경기도 : 돌베개>의 번역문에 따른 것임.

64)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占基.

65)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占基.

66)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占基.

67)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占基.

좋다. 동산은 완만하게 이어지면서도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좋고, 들판은 널찍하면서도 빛이 잘 들어야 좋다. 나무는 오래되어야 좋고, 샘물은 물이 잘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집 옆에는 채소와 오이를 심을 수 있는 남새밭이 있어야 하고, 남새밭 옆에는 기장과 벼를 심을 수 있는 밭이 있어야 하며, 밭의 가장자리에는 물고기를 잡거나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는 냇물이 있어야 한다. 냇물 너머에는 산록이 있어야 한다. 이 산록 밖에는 산봉우리가 있어서 북을 걸어두는 살갓 모양도 같고, 트레머리 모양도 같으며, 뭉게구름 모양도 같아서 멀리 조망하는 멋이 있어야 한다. 또 형국 내외에 수십에서 1백 호에 이르는 집이 있어서 도적에 대비하고, 생활필수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허황되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자가 주민들 사이에 끼어서 기분을 잡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대략이다.<sup>68)</sup>

이 책에는 주택 배치에 대한 의견도 일조와 채광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sup>69)</sup> 그 밖에도 거주환경과 주거와 관련된 의식주의 제반 사항을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으며, “보양지(保養志)”편에서는 섭생, 양생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고 있어 조선시대 건강장수의 경험적 지식으로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위생보건에 관한 풍토적 조건에 관한 논의는 건강장수도시의 환경적 요인으로 참고될 수 있는 전통적 견해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거주환경과 건강장수 간의 논의와 관련하여 서유구는, 풍토병을 유발할 수 있는 토지의 조건과 질병에 대해서 설명한 후 지역 분포까지 열거하고 있어 주목된다. 장기(瘴氣)<sup>70)</sup>라는 말로 표현된 풍토병이 드러나는 곳에 대하여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나 서유구는 장기의 전국적인 분포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건강장수마을의 지역보건위생 조건을 논의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 책에는 풍토병(장기)에 따른 해독과 전국적 실상, 그 풍토적 원인 등을 적고, 시골에서 살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살핀 후에 집터를 찾고 농토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장기가 있는 지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의 함양, 함안, 단성, 풍기는 모두 장기가 있는데, 진주와 하동이 가장 심하다. 호남의 순천, 여산, 태인, 고부, 무장, 부안, 고산, 익산 등지에 곳 곳마다 장기가 있는데, 광양, 구례, 흥양이 특히 심하다. 호서는 청양, 정산에 장기가 있다. 경기도는 남양, 안산, 통진, 교하의 바다와 접한 지역에 간혹 장기가 있다. 삭녕과 마전 등의 지역에도 간간이 장기가 있는 곳이 있다. 해서의 평산, 황주, 봉산 등의 고을은 토질이 차지고 수질이 혼탁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질병이 많은데, 금천 경내가 특히 심하다. 관서의 양덕, 맹산, 순천 사이에는 수질과 토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한다. 관동은 영흥에도 장기가 있다고 한다.<sup>71)</sup>

68)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占基.

69) 관련 내용을 보면, 집터를 정할 때는 반드시 북쪽을 등지고 남향을 해야 춥고 따뜻함이 적절하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것임. 서쪽을 등지고 동향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인데 왕성하게 솟아나는 생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음. 가장 나쁜 자리는 동쪽을 등지고 서향을 하는 것인데 이런 배치는 햇빛을 일찍부터 볼 수 없기 때문임. 북향하는 자리는 바람과 기운이 음산하고 주위서 과실과 채소가 자라지도 않으니 거처할 수 없다고 하였음(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占基).

70) 사전적 의미로는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나오는 독기를 뜻함. 장독(瘴毒)이라고도 하며, 더운 지방의 산과 숲, 안개가 짙은 곳에서 습열(濕熱)이 위로 올라갈 때에 생기는 나쁜 기운으로 전염을 일으키는 사기(邪氣)의 하나로 알려짐. 한의학적으로는 남쪽 지방의 숲속에 있는 습열(濕熱)한 장독을 받아 생기는 온병(溫病)이라고 함. 토질과 수질이 좋지 못하고 덥고 다습한 곳에서 생기는 수인성 풍토병으로 이해됨.

이상에서 보았듯 서유구의 논의는, 기존의 선행 저술에서 제기되었던 거주환경과 주택 관련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바람직한 주거관과 이상적인 거주환경 조건에 대하여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V. 결론

건강장수도시의 한국적 원형을 탐구하기 위해 조선 시대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를 살펴보는 작업은 현대적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전통적 논의는 현대의 자본 가치에 최우선의 목표지향점을 둔 실용적·경제적 주거관과 환경생태적으로 열악한 도시거주환경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전통적 주거관에 일관되어 있는 거주환경과 신체의 상관적·통합적 인식방식, 그리고 거주환경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마을 단위의 자연친화적인 실천형태로 요약된다.

전통적인 주거관의 인식체계에 있어서 건강장수의 신체적 조건은 거주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통합되었다. 조선후기에 유교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지리적 거주환경 요건은 여타 건강장수의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사람은 거주환경을 선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주체적 위상을 가진 존재로서 파악되었다.

거주환경과 건강장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인식은 도교의 장생술과 양생법, 풍수, 의학 등과 상호 연관되어 논의가 전개되었다. 전통사상에서 건강장수의 거주환경과 장소적 조건을 전문

적으로 논의한 분야는 풍수사상이다. 조선후기에 풍수는 사회계층과 지역 여하를 막론하고 주거관을 지배한 사고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주환경을 실제적으로 관리한 실행원리였다.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은 중국의 주택풍수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마을과 주택의 입지를 선정하고 집의 건축에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실생활에서 지속가능한 거주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풍수를 문화생태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조선후기의 저술인 홍만선의 「산림경제」, 이증환의 「택리지」,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유교지식인들의 주거관과 이상적인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책이다. 여기에는 공간입지, 환경관리, 경관미학, 지역보건위생의 측면에서 조선후기 사대부들의 주거관이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주거지의 지역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의 경험적인 건강장수의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오늘날에도 건강장수를 위한 섭생과 주거에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저술에서 논의된 이상적인 거주환경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적 입지 환경으로는 시냇가 주거를 선호하였다. 입지형태는 기본적으로 분지지형에, 산지입지에서는 입구에 합수처가 있고, 들판입지에서는 하천이 교차되어야 했다. 그리고 충분한 일조량과 경작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내부영역이 요구되었다. 시각적으로 주위의 산 모양이 아름답고 균형미를 갖추면서도 생동감이 있어야 하며, 청각적으로 물소리 등 자연에서 나는 소리가 쾌적한 느낌을 주는 곳이 좋았다. 위생적인 식수원과 환경보건을 위해 토양·토질의 선택도 중요

71) 林園經濟志, 卷6, “相宅志”, 占基.

하게 고려되었다.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거주환경 요인이 없으며, 마을 호수(戶數)와 인구의 적절한 공동체 규모도 필요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주거관과 거주환경 논의가 오늘날의 새로운 건강장수도시 개념의 정립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한국형 건강장수도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환경용량에 적합한 도시마을단위의 공간적 규모와 자연친화적인 주거문화 전통의 연속성이라는 지표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공간적인 기초단위는 건강장수마을로 구성될 수 있다.

건강장수마을 개념은 건강장수도시 개념의 틀 속에서 하위 위계단위로 이해될 수 있지만, 건강장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적 문화전통의 계승과 지속가능한 도시구성을 위한 기본단위로서 마을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건강장수도시의 개념과 공간적으로 구별된다. 건강장수마을은 건강장수도시 개념에서 구체화되어 지역 주거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도시)마을 단위의 실제적인 구성으로 지향성을 갖는다.

건강장수마을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선후기에 실학자들의 저술에서 검토된 지역별 거주환경 논의와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예컨대 「택리지」의 가거지 및 가거부적지의 지역 분포, 「임원경제지」에 소개된 전국 230여 명지의 지역 정보 등이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조선후기에 널리 유행하였던 「정감록」의 십승지와 전통적인 이상향 장소 등도 참고될 수 있다. 한국의 문화전통에서 이상적인 거주환경의 입지 조건은 소규모 하천을 끼고 있는 분지 지형으로 요약되기에 이 역시 향후 건강장수마을의 입지 선정에 참고될 수 있다. 또한 십승지를 비롯해 전통적으로 이상향으로 지목된 장소들이 산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도 유의할 만하다. 이러한 특성은 서양 유토피아의 지리적 위치로 주로 섬이나 도시적 환경이 지향되는 것과 변별성을 갖는다.

조선후기의 마을입지 논의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한국형 건강장수마을의 입지론 요소로 도입할 가치가 있다. 「택리지」의 수구, 야세, 산형, 토색, 수리, 조산·조수 등의 인자를 포함한 거주환경 조건의 논의를 자연재해 방지, 수자원 확보, 환경심리 안정, 방풍·온열 효과, 경관생태적 보전, 환경(경관)미학 등의 측면으로 해석하여, 그 합리적인 요소를 일반화시키고 환경적합성의 GIS 분석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건강장수마을의 입지 선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글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주요 문헌을 위주로 한국 전통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를 고찰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현대적 해석과 심화된 이론 연구, 그리고 현지조사연구가 요청된다. 조선후기의 저술에서 이상적인 거주환경을 지닌 장소로 수록된 가거지, 명지, 승지, 이상향 등의 장소 분석과 현지조사는 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다.

특히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건강장수의 우수 사례가 될 만한 전통마을을 모델링하고 거주환경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건강장수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면서 수백 년간 지속가능성이 검증된 전통마을의 거주환경 조건은 한국형 건강장수마을의 계획에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통마을은 오래된 미래로서 실재하는 건강장수마을의 한국적 원형이다.

이 연구에서 개진된 논의가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과 한국형 건강장수도시의 개념 정립, 모형 도출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관홍. 2010. "건강도시 지표와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성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덕현. 2010. "「택리지」의 자연관과 산수론". *한문화연구* 제3집. pp69-88.

김충래 · 이광영. 2004. "환경친화적 도시 마을 계획 세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봉화 해저마을과 아산 외암마을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519-522.

김태환 외. 2011.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경기 : 국토연구원.

마르셀 그라네. 2010. *중국사유, 유병태 역*. 서울 : 한길사.

박삼옥 · 정은진 · 송경언. 2005. "한국장수도 변화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87-210.

박의준. 2001. "한국 전통 취락입지의 지리학적 고찰". *호남문화연구* 제29권. pp285-326.

서유구. 2005. *산수 간에 집을 짓고, 안대회 편역*. 경기 : 돌베개.

심경호. 2009. "「임원경제지」의 문명사적 가치". *쌀 · 삶 · 문명 연구* 제2권. pp5-42.

염정섭. 2002. "18세기 초중반 「山林經濟」와 「增補山林經濟」의 편찬 의의". *규장각* 제25권. pp177-200.

예경희 · 김재한. 2007. "鄭鑑錄과 擇里志의 可居地鄭 比較 研究". *청대학술논집* 제10권. pp1-34.

유중림. 2003. *증보산림경제 I ~ III*. *古農書國譯叢書* 4. 경기 : 농촌진흥청.

이도원. 2005. *전통마을 경관요소들의 생태적 의미*.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이도원 외. 2004, 2008. *한국의 전통생태학 1, 2*. 서울 : 사이언스북스.

이원규. 2009. "미국 시애틀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수법으로서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중환. 1993. *택리지. 이익성 역*. 서울 : 을유문화사.

이학동. 2003. "전통마을의 분석과 풍수지리 이론을 통해서 본 주거환경 조성원리의 탐색". *거주환경* 제1권 제1호. pp131-168.

전경수. 2008. *백살의 문화인류학*. 경기 : 민속원.

전영권. 2002. "택리지의 현대지형학적 해석과 실용화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pp256-269.

조창록. 2005. "일본 대판(大阪) 중지도도서관본(中之島圖書館本)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인(引)과 예언(例言)». *한국실학연구* 제10권. pp353-387.

\_\_\_\_\_. 2010. "풍석(楓石), 서유구(徐有築)의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한국실학연구* 제19권. pp287-307.

최기수. 2001. "朝鮮時代 전통마을에 나타난 捷息觀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19권 제3호. pp27-39.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서울 : 한길사.

최원석. 2004. *한국의 풍수와 비보*. 서울 : 민속원.

\_\_\_\_\_. 2009a. "최한기의 기학적 지리학과 지리연구방법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pp86-98.

\_\_\_\_\_. 2009b.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6호. pp745-760.

\_\_\_\_\_. 2010. "택리지에 관한 풍수적 해석". *한문화연구* 제3집. pp43-68.

\_\_\_\_\_. 2011. "마을풍수의 문화생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pp259-269.

최희만. 2005. "GIS를 이용한 전통취락의 지형적 주거입지 적합성 분석". *지리학연구* 제24권. pp300-319.

한명호. 2003. "도시공간의 쾌적 음환경 창조를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12호. pp251-262.

한상모 외. 1991. *동의학 개론*. 서울 : 여강.

金正浩. 靑邱圖.

徐有築. 林園經濟志.

徐善繼 · 徐善述. 地理人子須知.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李重煥. 擇里志.

丁若鏞. 輿猶堂全書.

崔漢綺. 氣測體義.

許浚. 東醫寶鑑.

洪萬選. 山林經濟.

管仲. 管子.

陽宅十書. 古今圖書集成.

左丘明. 春秋左氏傳.

黃帝內經.

黃帝宅經. 古今圖書集成.

UN. 1996. *The Habitat Agenda, Habitat II*. NY: UN.

Davis Llewelyn. 2000. *Millennium Villages and Sustainable Communities*. London : DETR.

- 
- 논문 접수일: 2012. 2. 20
  - 심사 시작일: 2012. 4. 3
  - 심사 완료일: 2012. 5. 8

## A Study on the View of Ideal Dwelling Environment in the Late Joseon Period : An Examination for Searching the Prototype of the Healthy & Longevity City in Korea

**Keywords:** View of Dwelling, Dwelling Environment, Healthy & Longevity City, Fengshui, Sallimgyeongje, Taengniji, Imwongyeongjeji.

It can be helpful to look over the traditional discussion about the conditions of dwelling environment for examining Korean Healthy & Longevity City prototype. Intellectuals were regard the dwelling environment as the basic and important factor in the Late Joseon Period. Fengshui mainly fulfilled its function as the dwelling location theory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rinciple. There are lots of useful contents on the Healthy & Longevity dwelling environment in the documents(Sallimgyeongje, Jeungbosallimgyeongje, Taengniji, Imwongyeongjeji) of Confusion Silhak School. The suitable spatial scale fit the environmental capacity and the succession of the nature friendly dwelling tradition are needed to get to achieve the Health & Longevity city project in Korea. This research could be a help to make ideal concept and model of the Korean style Healthy & Longevity city.

### 조선후기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 : 건강장수도시의 한국적 원형 탐구를 위한 문헌 고찰

**주제어:** 주거관, 거주환경, 건강장수도시, 풍수, 산림경제, 택리지, 임원경제지

조선후기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조건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와 역사적인 경험을 검토하는 일은 현대적인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주거관을 보면 거주환경의 선택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다. 풍수는 살기 좋은 터전을 선택하기 위한 입지론뿐만 아니라 마을의 거주환경 관리에 활용되었다.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택리지」, 「임원경제지」 등의 저술에는 조선후기 유교지식인의 주거관과 이상적인 거주환경 조건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으며, 오늘날에도 건강장수를 위한 선택과 주거에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다. 건강장수도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게 한국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환경 용량에 적합한 마을의 공간적 규모와 자연친화적인 주거문화 전통의 연속성이라는 지표와 방향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가 한국형 건강장수도시의 개념 정립과 모형 도출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